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

황수경**

I. 머리말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된다.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비록 미미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나, 이러한 경기회복 지표와는 달리 고용은 여전히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11월 기간 중 전년동기대비 약 8만 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고용지표가 희망근로와 같은 인위적인 정부 일자리 25만 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에 더욱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해 살펴보면, 성장의 고용효과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절약적인 생산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하려는 유인을 갖는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 확장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서비스업은 노동공급의 질이 주된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특히 고학력노동에 친화적이다. 이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5%에 달하는 청년층 고용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점검하고 서비스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업종별 고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수행된 황수경 외(2010),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 제2장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khwang@kli.re.kr).

II.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일국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이용해 집약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일정 산출액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text{취업계수} = \text{취업자수} \div \text{실질GDP}$$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자증가율을 실질GDP증가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고용탄성치는 실질부가가치가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text{고용탄성치} = \text{취업자증가율} \div \text{실질GDP증가율}$$

<표 1>은 우리 경제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

<표 1>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

(단위: 명/10억)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70s	116.5	0.40	174.8	0.56	55.0	0.74
1980s	66.6	0.29	92.2	0.43	47.4	0.63
1990~96	41.6	0.31	55.4	-0.08	38.0	0.73
1997~99	33.6	0.08	35.0	-0.26	35.3	0.67
2000s	26.9	0.31	20.8	-0.10	32.5	0.66
2000	30.5	0.48	27.5	0.38	34.2	0.74
2001	29.9	0.50	26.7	-0.25	34.2	0.97
2002	28.6	0.39	24.4	-0.07	33.1	0.55
2003	27.8	-0.05	23.0	-0.16	32.6	0.13
2004	27.1	0.41	21.3	0.20	32.9	1.39
2005	26.4	0.33	19.8	-0.21	32.6	0.72
2006	25.4	0.25	18.0	-0.20	32.0	0.56
2007	24.5	0.24	16.6	-0.16	31.1	0.47
2008	24.1	0.28	16.0	-0.32	30.8	0.61

주: 1)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

2) 실질GDP는 2005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업 각각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도 산출하였다. 1970년대에는 10억의 부가가치를 산출하는데 117명의 취업자가 필요했지만 1980년대 67명, 1990년대 34~42명을 거쳐 2000년대에는 27명으로 필요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1인당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산출량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용탄성치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고용이 0.4%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동일한 성장에도 고용은 0.3%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3년에는 2.8%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3만 개가 줄어들어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용탄성치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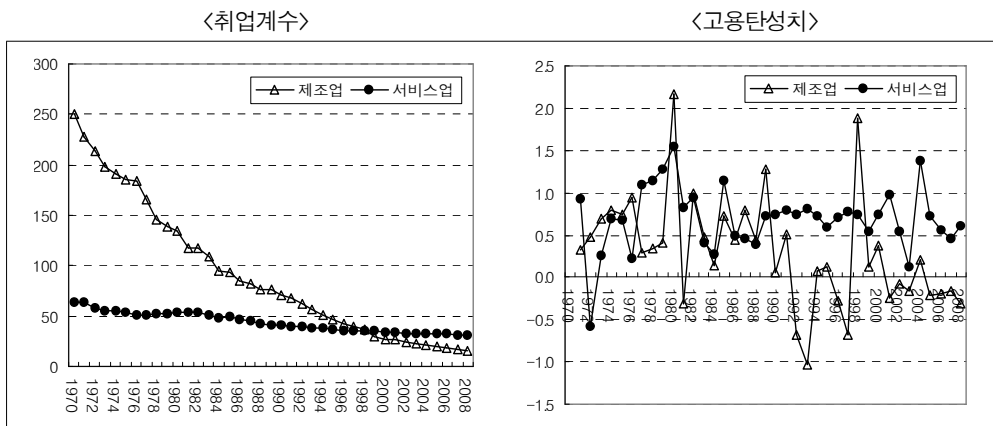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지난 40년간 급격하게 하락한데 반해 서비스업에서는 취업계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고용탄성치는 연단위로 변동이 심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취업계수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0년대부터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큰 변동 없이 0.7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00년대 이후로 한정해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업은 영세소매업에서부터 회계·법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이

[그림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추이



고 다양한 업종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로 파악되는 고용창출 능력에서도 업종간에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표 2>는 서비스업을 서비스 특성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을 기초로 4개 범주로 유형화하여(Singelman(1978)의 분류) 유형별로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를 산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서비스업 분류체계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전체로는 취업계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는 취업계수의 꾸준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고용탄성치 추이를 살펴보면, 유통서비스업에서는 고용탄성치가 빠르게 감소하여 2004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는

<표 2> 서비스업 유형별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단위: 명/10억)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유통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1992	73.0	15.9	22.6	78.3	-	-	-	-
1993	73.4	15.8	22.2	76.3	1.11	0.91	0.56	0.66
1994	71.3	15.7	21.7	72.6	0.61	0.96	0.51	0.60
1995	67.8	15.5	21.8	70.5	0.29	0.87	1.13	0.67
1996	65.1	15.6	21.3	69.7	0.43	1.11	0.43	0.86
1997	62.8	15.7	21.1	70.8	0.37	1.10	0.86	1.29
1998	65.0	15.6	22.9	71.4	0.47	1.38	-12.74	0.91
1999	58.1	16.1	23.2	63.6	0.18	6.58	1.35	0.23
2000	51.4	16.9	22.9	66.4	0.29	2.17	-1.10	0.72
2001	49.8	17.7	23.0	65.4	0.47	2.37	1.32	0.74
2002	47.7	16.7	23.5	63.3	0.32	0.45	1.63	0.57
2003	46.6	16.9	24.3	62.1	4.91	1.28	1.82	5.82
2004	45.2	17.8	24.3	64.2	-0.17	5.70	0.96	2.39
2005	43.7	18.0	24.6	63.9	-0.02	1.29	1.38	0.85
2006	42.0	18.5	24.4	61.2	0.03	1.75	0.89	0.23
2007	39.8	18.7	24.0	59.5	-0.03	1.23	0.58	0.43
2008	38.4	18.7	24.9	58.7	-0.55	0.91	2.31	0.30
'92~'99	66.4	15.8	22.1	71.0	0.40	1.14	1.04	0.60
'00~'08	44.6	17.8	24.0	62.5	0.01	1.32	1.31	0.61

주: 2000년 전후로 통계청 산업분류체계가 바뀌면서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의 취업자수에서 시계열단절이 발생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 서비스업의 분류

	GDP(국민계정, 2005)	취업자(경찰조사, 1992~99)	취업자(경찰조사, 2000~08)
유통	도소매업 운수 및 보관업 통신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운수업 J. 통신업
생산자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사회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L.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M.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N.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	음식숙박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출판, 방송, 영화, 정보, 기타서비스	H. 숙박 및 음식점업 O.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P. 가사서비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Q.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주: Singelman(1978)의 분류체계에 따름.

부가가치 1% 성장시 고용은 각각 1.32%, 1.31% 증가하여 GDP증가율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는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숙박·음식점업에서의 고용 감소와 주로 관련된다.

요약하면, 유통서비스업과 일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 여지가 많고 특히 높은 고용탄성치를 보여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최종수요 증가와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은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에서 제조업을 압도한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것은 서비스 수요의 확대가능성이다. 노동생산성의 정의를 이용하면 서비스업의 고용 E_i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_i = Y_i^d \cdot A_i^{-1} \dots\dots\dots (1)$$

여기서 Y_i^d 는 i 서비스에 대한 수요(지출)이고 A_i 는 i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효과는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와 서비스 수요의 증가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단위당 고용은 줄어들지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 추가로 고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

크기에 의해 산업의 고용총량이 감소 또는 증가하게 된다.

Schettkat(2007)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를 비중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frac{E_i}{E} = \frac{Y_i^d}{Y^d} \times \frac{A}{A_i} = \alpha \cdot \beta^{-1} \dots\dots\dots (2)$$

이때 α 는 i 업종의 수요비중이고, β 는 i 업종의 상대생산성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업 고용비중의 변화는 서비스 수요의 변동과 서비스 공급 측면의 변화요인인 노동생산성 변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표 4>는 식 (1)을 이용하여 2005~07년 기간 중 산업별 고용변동을 시장 규모를 의미하는 총수요와 노동생산성 변동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것이다. 분석자료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가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취업자수는 연간기준 인원(man-year)으로 파악되어 통계청의 취업자수와는 차이가 있다.¹⁾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하면 총수요 증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노동생산성 변동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조업에서는 수요가 서비스업보다 약간 빠르게 증가하는 정도지만 노동생산성도 빠르게 향상되어 고용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수요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덜 증가하거나 거의 정체되어 고용총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과 비교하면 2007년에 서비스업 고용은 2.9%포인트 더 증가하였는데 이 중 수요 증가가 기여한 부분은 1.3%포인트이고 노동생산성 감소가 기여한 부분은 1.6%포인트가 되고 있다.

서비스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수요 증가(2005~07년 기간 중 7.1%)가 가장 현저한데 생산성(-1.1%)이 감소하면서 고용(8.3%)이 수요가 확대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빠른 수요 증가율(6.0%)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성(0.2%)이 정체되어 수요 증가가 고스란히 고용 증가(5.8%)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수요와 생산성이 나란히 증가하여 고용은 3%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중 가운데 최근 수요가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업종은 연구기관(12.3%), 수상 및 항공운송(11.9%), 금융 및 보험(11.9%) 등이다. 그러나 수상 및 항공운송, 금융 및 보험에서는 생산성이 함께 증가하여 고용을 늘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4~6%)

1)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에서 연간기준 인원이란 사업체 조업기간 및 근로자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투입노동량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6개월만 조업한 사업체의 근로자 1명과 1년 동안 계속 조업한 사업체에서 6개월만 근무한 근로자 1명은 각각 연간기준 인원으로는 0.5명으로 환산되게 된다.

<표 4> 서비스 업종별 고용 변동의 분해

(단위: %)

	2006			2007			2005~07		
	취업자 증가율	총수요 요인	생산성 요인	취업자 증가율	총수요 요인	생산성 요인	취업자 증가율	총수요 요인	생산성 요인
전 산업	2.6	6.1	3.3	4.0	6.5	2.4	3.3	6.3	2.9
제조업	1.2	7.9	6.6	1.8	7.0	5.1	1.5	7.5	5.9
서비스업	3.3	5.5	2.1	6.2	6.7	0.6	4.7	6.1	1.3
<유형>									
유통서비스업	0.5	3.7	3.2	5.5	7.0	1.4	3.0	5.4	2.3
생산자서비스업	7.8	6.5	-1.2	8.8	7.7	-1.1	8.3	7.1	-1.1
사회서비스업	5.0	6.4	1.3	6.6	5.6	-0.9	5.8	6.0	0.2
개인서비스업	2.0	5.0	3.0	4.2	5.6	1.3	3.1	5.3	2.2
<업종>									
도소매	0.4	4.0	3.7	6.5	6.0	-0.4	3.4	5.0	1.6
음식점 및 숙박	0.4	5.1	4.7	6.5	5.2	-1.2	3.4	5.1	1.7
육상운송	0.5	0.7	0.2	2.7	1.1	-1.6	1.6	0.9	-0.7
수상 및 항공운송	8.3	5.7	-2.4	3.6	18.4	14.3	6.0	11.9	5.6
보관 및 운수관련	0.6	4.1	3.6	3.4	7.5	4.0	2.0	5.8	3.8
통신	0.9	4.0	3.1	6.5	6.7	0.1	3.7	5.4	1.6
방송	-3.5	7.8	11.8	1.1	5.7	4.6	-1.2	6.8	8.1
금융 및 보험	2.7	9.4	6.6	6.5	14.3	7.3	4.6	11.9	6.9
부동산	8.2	2.7	-5.1	8.5	1.6	-6.3	8.3	2.1	-5.7
연구기관	10.7	10.4	-0.3	12.2	14.4	1.9	11.4	12.3	0.8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5.2	8.3	-6.0	7.8	5.2	-2.4	11.4	6.7	-4.2
기타사업서비스	5.1	5.6	0.5	11.0	7.6	-3.1	8.0	6.6	-1.3
공공행정 및 국방	1.4	5.5	4.1	2.0	4.8	2.7	1.7	5.2	3.4
교육서비스	5.5	5.4	-0.1	7.3	3.9	-3.2	6.4	4.6	-1.7
의료 및 보건	6.9	9.4	2.4	8.0	8.1	0.1	7.5	8.8	1.2
사회복지사업	11.5	3.4	-7.3	15.8	12.7	-2.6	13.6	7.9	-5.0
위생서비스	3.6	5.7	2.0	9.9	5.1	-4.4	6.7	5.4	-1.3
출판 및 문화서비스	-12.0	5.9	20.3	2.1	4.2	2.1	-5.2	5.0	10.8
오락서비스	19.2	5.6	-11.5	-6.2	11.2	18.6	5.7	8.3	2.5
사회단체	2.4	2.2	-0.2	1.6	6.2	4.5	2.0	4.2	2.1
기타서비스	3.8	3.3	-0.4	4.2	3.5	-0.6	4.0	3.4	-0.5

주: 총수요는 2005년 기준 실질부가가치로 측정.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5, 2006, 2007 연계표 및 각년도 고용표.

연구기관에서는 생산성이 근소하게 증가하여 고용 증가(11.4%)가 현저하였다.

사회복지사업(13.6%)과 사업관련 전문서비스(11.4%)도 고용 증가율이 매우 높았던 업종에 해당되는데, 이들 업종에서 수요 증가는 6~8%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4~5%)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출판 및 문화서비스(-5.2%)와 방송(-1.2%)의 경우는 분석기간 중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수요 증가율은 5~7%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들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은 수요 위축에 기인하기보다는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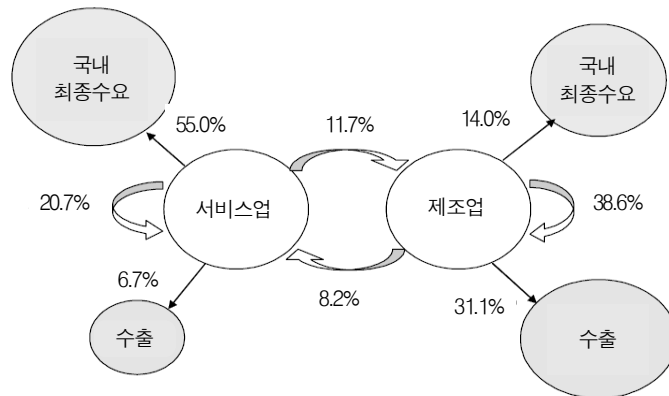
반면에 수요 증가가 매우 저조한 육상운송(0.9%), 부동산(2.1%), 기타서비스(3.4%)의 경우에는 고용을 확대하는 데 수요 요인이 직접적인 제약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생산성(-5.7%)이 크게 감소하여 고용 성과(8.3%)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기타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위생서비스의 경우도 고용 성과가 수요 증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업종에서 시험된 고용 성과가 주로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고용의 질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왜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용 성과와 함께 고용변동의 원인과 배경이 업종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IV. 서비스업의 산업연관 및 고용유발 효과

서비스업의 확장이 높은 소득탄력성을 갖는 최종수요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림 2]는 2007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출의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 구성을 보여준다. 제조업 산출물의 14.0%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31.1%가 수출되는데 반해 서비스업 산출물의 수출비율은 6.7%에 불과하고 55.0%가 국내에서 소비된다. 서비스 산출의 11.7%가

[그림 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출의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 구성(2007)



자료: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표」.

제조과정에 투입되고 제조업 산출의 8.2%가 다시 서비스업에 투입되는 사슬구조를 취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투입되는 비율은 38.6%,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입되는 비율은 20.7%를 차지한다.

<표 5>는 서비스 업종별로 총수요 구성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보관운수관련 서비스, 연구기관, 기타사업서비스, 방송업,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등에서 중간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복지사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등에서는 대부분의 수요가 국내소비로 이어진다. 중간투입비가 높은 서비스 업종 가운데서도 연구기관, 보관운수, 육상운송 등은 제조업 투입이 많은 반면, 방송통신, 출판문화, 기타

<표 5> 서비스 업종별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 구성(2007)

(단위: %)

	중간투입			최종수요		총수요
	제조업	서비스업	국내소비	수출		
전 산업	46.3	24.7	14.7	36.5	17.2	100.0
제조업	54.9	38.6	8.2	14.0	31.1	100.0
서비스업	38.3	11.7	20.7	55.0	6.7	100.0
도소매	49.2	28.8	13.0	41.0	9.7	100.0
음식점 및 숙박	34.9	0.0	0.0	61.6	3.5	100.0
육상운송	60.4	32.2	24.7	38.7	0.9	100.0
수상·항공운송	18.2	5.4	12.1	1.3	80.5	100.0
보관·운수관련 서비스	82.0	34.2	43.0	11.8	6.2	100.0
통신	57.0	6.6	48.6	41.5	1.5	100.0
방송	73.4	0.0	64.7	24.3	2.4	100.0
금융 및 보험	59.3	9.7	46.6	34.8	5.9	100.0
부동산	26.2	1.9	23.4	73.3	0.5	100.0
연구기관	82.8	63.5	13.6	12.5	4.7	100.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68.7	24.4	31.4	27.1	4.2	100.0
기타사업서비스	72.7	16.6	51.4	7.1	20.2	100.0
공공행정 및 국방	1.0	0.0	0.7	99.0	0.0	100.0
교육서비스	1.6	0.5	1.0	98.2	0.2	100.0
의료 및 보건	7.8	2.1	4.3	92.1	0.1	100.0
사회복지사업	0.0	0.0	0.0	100.0	0.0	100.0
위생서비스	65.7	18.2	41.9	34.1	0.2	100.0
출판·문화서비스	57.6	3.4	49.3	39.2	3.1	100.0
오락서비스	13.9	0.0	1.7	83.4	2.7	100.0
사회단체	22.2	7.5	12.3	77.8	0.0	100.0
기타서비스	12.8	1.7	5.3	86.4	0.7	100.0

주: 총수요대비 구성비임.
 자료: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표」.

사업서비스 등은 서비스업으로 다시 투입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수요가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는 전산업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수요가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는 취업유발계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최종수요의 취업유발효과는 아래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L = \hat{l}(I - A^d)^{-1} Y^d \dots\dots\dots (3)$$

<표 6>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전 산업	14.7	14.3	13.9	9.9	9.7	9.5
제조업	10.1	9.6	9.2	7.2	6.9	6.6
서비스업	18.4	18.2	18.1	12.6	12.6	12.6
도소매	30.8	29.9	29.9	15.5	15.4	15.4
음식점 및 숙박	38.3	36.7	36.9	16.5	15.9	16.3
육상운송	25.4	25.3	25.7	16.9	16.7	16.9
수상·항공운송	3.7	3.3	3.1	3.1	2.9	2.7
보관·운수관련 서비스	13.3	12.9	12.7	11.2	10.7	10.6
통신	10.3	10.7	11.3	8.1	8.3	8.6
방송	12.2	11.6	10.9	10.0	9.6	9.1
금융 및 보험	10.8	10.7	10.4	9.9	9.7	9.4
부동산	6.7	6.9	7.0	5.5	5.7	5.7
연구기관	16.2	16.3	16.0	14.2	14.2	14.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4.9	15.4	15.8	12.5	13.1	13.5
기타사업서비스	24.0	23.7	24.1	20.7	21.0	21.6
공공행정 및 국방	15.0	14.6	14.5	13.3	12.9	12.8
교육서비스	22.8	22.9	23.6	20.0	20.1	20.4
의료 및 보건	16.9	16.6	16.7	13.7	13.5	13.5
사회복지사업	29.9	31.8	32.7	26.7	28.5	29.3
위생서비스	15.2	14.9	15.4	13.4	13.2	13.7
출판·문화서비스	20.6	18.6	18.4	14.5	13.7	13.5
오락서비스	18.3	20.1	17.6	11.1	11.3	10.5
사회단체	34.1	34.0	33.0	29.8	29.8	28.9
기타서비스	30.5	30.8	30.8	14.8	15.1	15.3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여기서 L 과 Y^d 는 각각 취업자수와 최종수요를 의미하고 \hat{l} 은 취업계수, $(I - A^d)^{-1}$ 는 생산유발계수 행렬을 의미한다. 따라서 $\hat{l} \cdot (I - A^d)^{-1}$ 가 취업유발계수가 된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취업계수 행렬과 생산유발계수표를 곱한 취업유발계수행렬, 즉 $\hat{l} \cdot (I - A^d)^{-1}$ 의 열합으로 정의되며, 해당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가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규모로 해석될 수 있다.

2007년 중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3.9명이며, 제조업은 9.2명, 서비스업은 18.1명으로 나타난다. 2005년과 비교하면 취업유발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표 6).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음식점 및 숙박(36.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고, 사회단체(33.0명), 사회복지사업(32.7명), 기타서비스(30.8명), 도소매업(29.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산출액 증가시 이들 업종에서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고용효과(=고용유발계수)로 살펴보면, 10억 원 산출시 전산업에서는 9.5명, 제조업은 6.6명, 서비스업은 12.6명의 고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유발효과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단체, 기타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높지만 상당수가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근로의 취업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점하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살펴보고 서비스 업종별로 고용, 서비스 수요, 노동생산성, 산업연관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탐색하였다.

서비스업은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산출당 노동투입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의 보 고라 할 만하다. 이는 제조업에서 노동절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고용창출여력이 급속도로 위축된 것과는 대조된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에서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서 양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고용 증가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한 고용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앞서의 분석에서 보듯이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와 함께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노동의 질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로 이 점이 서비스업 고용전략의 복합적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전략에서도 구체적인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연구를 포함한 전문사업서비스, 금융보험업, 그리고 오락 및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운수업 중에서는 수상 및 항공 운송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상적 활동보다는 여행이나 해외물류서비스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종은 소득탄력성이 높아 향후 성장가능성도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고용전략이 요구되는 업종이라 하겠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출판문화방송 분야와 금융 및 보험업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된 반면, 보건복지와 전문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 결과 전자에서 고용 성과가 낮고 후자에서 고용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출판문화방송 분야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도 자원이 생산성 제고에만 배분되고 고용 성과는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대중적인 다양한 문화 수요를 창출하여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보다 고용친화적인 시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와 전문사업서비스 분야는 노동생산성 증가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부가가치가 낮은 수요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건의료 및 복지는 공공부문 의존성이 높아 민간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적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을 비롯해 디자인, 법률회계 등 전문사업서비스는 전산업에 걸쳐 산업연관효과도 높고 산업 혁신의 중추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가 크게 둔화되어 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극복과 창의적 인력양성이 단서를 쥐고 있다.

한편 도소매,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 전통적 소비자서비스업과 육상운동, 부동산업 등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분야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 분야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교육서

비스 분야는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여 어느 정도 고용 성과가 유지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오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확대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중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은 비교적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는 추세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는 노동생산성도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시장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변화무쌍하고 매우 역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재화에 비해 서비스의 변화주기가 짧고 정책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서비스업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항상적으로 점검하면서 고용창출에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비스업은 인간의 노동이 핵심자원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입되고 도전정신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그에 적합한 인력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KLI**

<참고문헌>

황수경 외(2009),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Schettkat, R.(2007), “The Astonishing Regularity of Service Employment Expansion,” *Metroeconomica* 58(3), pp.413 ~ 435.

Singelmann, J.(1978) “From Agriculture to Services”,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Employ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